유럽연합에 영국의 국민투표의 3번째 기념일이 되면서 이제서야 침체되었던 시기에서 빠져나온 것을 암시한다. 재정센터로서 국회에 런던의 전망에 대해 국회에 한 자문 중에 1월 말에 한가지의 조짐이 보였다. 그 지시는 그들 스스로 투표하면서 유명한 은행에 대응하는 것이다. 골드만삭스, 제이피모건, 모건스탠리, 그리고 시티그룹은 런던에서 프랑크푸르트로 대차대조표 자신의 약 3000억 달러를 옮겼다. 그리고 바클레이는 또 다른 2150억 달러를 더블린으로 옮기는 것을 승인받았다. 비앤피 파리바스, 크레디 아그리콜, 그리고 소시에떼 제네할은 런턴에서 파리로 500명의 스텝을 전근보냈다. 에이치에스비씨는 영국에서 프랑스로 유럽 자회사 대부분의 소유권을 옮겼다.

브렉시트 체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은 고조되었다. 국무총리 테레사메이의 정부는 영국 은행이 주최국가 규제자의 추가승인 없이 EU 통틀어 여권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협상에 들어갔다. 하지만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보면 예를들어 노르웨이처럼 국가가 유럽경제지역에 속하였을 때만 비회원에게도 여권을 발급해 준 것을 볼 수 있다.